

여성 힘 다지기

2020 vol.31

Zoom-in

혼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Issue&View

비혼/반혼 여성과 4B 운동

이슈 더하기

여성과 자연, 다르지만 같은 아픔

CONTENTS

Zoom-in

혼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02



발행인
대전광역시장

발행일
2020년 6월 30일

편집위원
주혜진, 길민지, 서정아, 심혜린, 양성욱, 조수은, 허용주

편집
김성곤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디자인·제작
디자인스튜디오203대전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연 2회 함께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Issue&View	
비혼/반혼 여성과 4B 운동	10
뉴스 빅데이터로 살펴본 '이룩하는 비혼'	14

Gender Talk	
반려동물과 함께 홀로 산다는 것	18
어쩌다비혼으로 살아가기	19



함께하는 생각	
대전지역 비혼 공동체 「비혼 후깅」	20
경상도 비혼 공동체 「WITH」	22

문화와 젠더	
비혼: 함께 살기의 새로운 가능성, 혼자 살기	24
비혼을 권하거나, 결혼을 권하지 않거나	27



Deajeon IS U	
2020년, 당신을 위한 대전시의 노력을 알려드립니다	30

공간 탐방	
여자의 방을 찾다	32



이슈 더하기	
여성과 자연, 다르지만 같은 아픔	36



혼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코로나 19는 '외로움 강권하는' 시절을 만들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뚜렷한 의지와 방향을 가지고
당차게 '혼자가 가는 삶'을 택하고 실천한다.
어떤 의지가 이런 삶을 택하게 했는지,
그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야기 나눴다.



임훈민

66

우리 사회가 제도나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정상가족'만 해당

99



주혜진

66

친밀한 관계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봤으면

99



권인호

66

'비혼'은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결혼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좀 더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입장

99



정수정

66

존재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비혼해야겠다고 생각

99

예전에는

‘혼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미혼’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그것은 마치 어떤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또는 완성하지 못했다는
규범적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주혜진



주혜진 반갑습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주혜진입니다. 오늘 뜻밖에 아담한 규모의 기획대담이 되었네요.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훈민 안녕하세요. 충남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재학중인 임훈민입니다. 인구와 가족, 불평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사회학회에서 “결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정수정 안녕하세요. 저는 비혼 할망구들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 꿈인 20대 ‘비혼’여성입니다.

권인호 반갑습니다. 저는 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자치지원관이라는 역할로 대덕구 송촌동에서 일하고 있어요. 평소에 페미니즘이나 성평등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지와 방향성이 담긴 단어, ‘비혼’

주혜진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비혼’ 이야기를 해볼까요? ‘비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지요. 예전에는 ‘혼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미혼’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그것은 마치 어떤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또는 완성하지 못했다는 규범적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단순히 혼인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비혼’이 쓰이는 걸까요?

임훈민 결혼 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독신,’ ‘싱글,’ ‘미혼,’ ‘비혼’ 등의 표현을 쓰는데 저도 ‘비혼’은 익숙치 않아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 ‘비혼’은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결혼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좀 더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에 대한 거부적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정수정 저는 ‘비혼’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엔 ‘비혼’을 대체 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단어가 ‘독신주의’라고 생각했어요. 독신주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의지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결혼은 안 하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는 ‘비혼’인 것 같아요.

‘비혼’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형태의 삶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권인호



권인호 저는 '비혼'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형태의 삶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연애하지 않을 자유」라는 책을 보니까 '4非(4B) 운동'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혼인과 출산, 연애와 섹스가 너무 당연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요.

주혜진 '비혼'이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했는지 궁금해서 빅카인즈¹를 통해 찾아봤어요. 1999년 12월에 혼전 동거에 관한 기사에서 '비혼'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18년에 1,45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언론에 많이 등장했다는 것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은 아닐까 추측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지와 방향성을 가진 단어라는 데 공감해요.

혼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한 '비혼'

임훈민 저는 우리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면서 '비혼' 이슈가 등장했다고 생각해요. 큰 맥락에서 삶의 목적이 행복의 추구라고 할 때, '결혼한다고 행복해질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수준이나 경제활동참여율은 높아졌는데 결혼제도나 양육 및 가사 부담은 그대로라면, 결혼하는 것이 나의 행복 추구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정수정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출산이나 양육은 결혼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보통은 주 양육자가 여성이다 보니 큰 부담을 느끼게 되죠. 아기가 가방에 달려있는 단순한 장식품은 아니잖아요.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케어를 해야 하니까 생각해야 할 게 많은 거죠.

임훈민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저 나인데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서 가족 안에서 아내나 어머니로 정체성이 변화하게 되는. 어쩌면 변화를 강요받는 상황에 대한 거부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권인호 결혼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결혼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남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이 흥미로웠는데요. 여성들은 결혼한

¹ 빅카인즈(BIGKinds)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기사 DB에 빅데이터분석기술을 적용해 만든 뉴스분석 서비스임.

(출처: 빅카인즈 홈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

이후에 올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 혼란이나, 자신의 삶이 축소되는 경향에 대해 걱정해서 결혼을 원치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에 남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경제적 측면이더라구요.

주혜진 남성 생계부양 모델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말할 하지만, '다정한 아내와 든든한 남편' 모델에 대한 신뢰 또는 환상이 아직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권인호 그 가족 모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이 자격지심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죠. 요즘 20대 남성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뜨겁잖아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들의 주요한 심리 중 하나가 부담감과 박탈감 일 것 같아요. 여전히 가족경제부양의 책임은 강력하데 그걸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기에 현실과 이상의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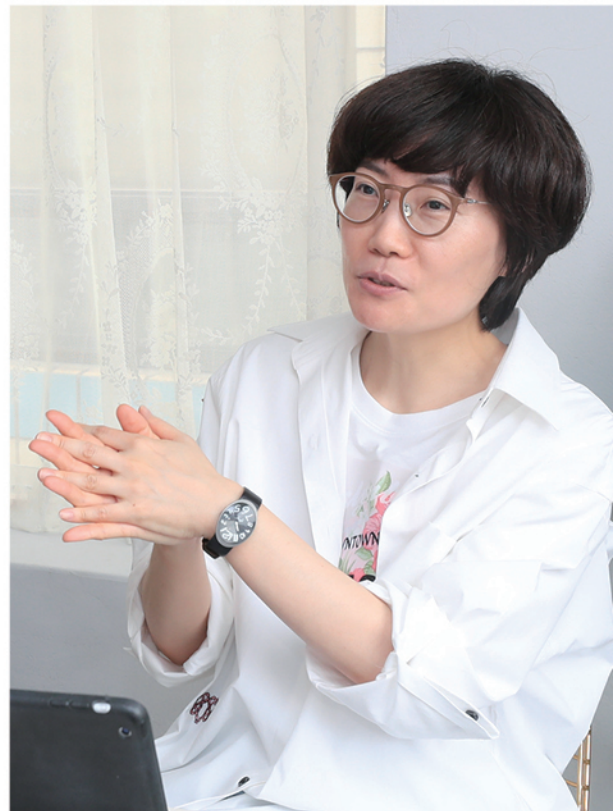
임훈민 자기가 못 버리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의 시선 혹은 압력도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아버지랑 해본 적이 있는데 '나는 아내가 나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좋다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싶다. 그게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딱 한 마디 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네.' (웃음) 이게 모든 걸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죠.

정수정 경제적 부담 얘기하셨는데 부모 세대에서는 가장이 가족을 어느 정도 부양하는게 가능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세대는 그게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인식은 그대로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우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결혼 권유하는 사회, 과연 '노멀'한 사회일까

권인호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이벤트이자 기점이잖아요. 결혼이 사랑의 완성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가부장제 안에서 남성은 더이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결혼이 친밀한 관계의 완성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 그런 사회적 통념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정수정 사랑에 '완성'이라는 수식이 붙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변하고 유지되고 끝날 수 있는 건데, 유독 결혼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에 비해 변하거나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식이 있다고 느껴요. '결혼 적령기'에 만나던 사람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 그대로 결혼하고, 결혼생활이 썩 좋지 않더라도 아이가 있어서, 혼자자 되는게 싫어서, 경제적 여력이 안 되어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볼까봐 참는다면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주혜진 정말 혼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사회조사에서도 혼인을 꼭 해야 한다는 대답의 비율이 많이 줄었거든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해지고 달라졌는데, 이들을 염려하는 뉴스는 꼭 나오죠.

권인호 관심이 많죠. 전국민이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 나이대가 높은 마을 자생조직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젊은 사람에게는 결혼 여부를 물어보는 게 일상이고, 저랑 같이 활동하는 사회 활동가분들도 '빨리 장가 보내야 한다' '우리가 결혼 시켜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정수정 어릴 때부터 한번도 제가 누군가와 결혼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면, 다들 지겹게 들어온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시집가더라!' '비혼' 인구가 아무리 늘어나도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요즘 것들이' 이기적이고 철없어서 그렇다고 치부하더라고요.

임훈민 그분들에게는 '비혼'이 아니고 '미혼'인거죠.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결혼은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다'라는 규범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노멀'한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혼외출산율이 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OECD 평균은 40% 정도거든요. 결혼 하고 애를 낳아야 한다는 통념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노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안전하고 다양한 친밀성의 형태를 생각한다

주혜진 친밀한 관계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N번방 사건도 그렇고, 각종 성범죄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면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가 너무 잘 드러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동등한 존재 대 존재로 건강하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남성이 여성을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4B 운동'이 '비혼'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것은 정치적 실천이야, 반성해 라고 주장한다고 느껴져요.

정수정 정치적 실천이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한 거라서요.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부터 우선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비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려면 해야겠다, 존재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비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변에서 연애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 후의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반대의 사람들도 역시 그렇죠.

임훈민 안녕감을 위해 비혼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정수정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다는 뜻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그로 인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굳이 연애를 해야 할까? 그리고 연애를 꼭 남녀끼리만 해야 할까? 동성과 연애하거나 아예 누구와도 연애하지 않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비혼'으로 잘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혜진 예전에는 동반자 관계나 전적인 돌봄을 제공해줄 사람을 결혼을 통해서 찾는 게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꼭 이성애와 결혼이라는 사회적 절차를 통해 맺어진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고 봐요.

정수정 제 친구도 남자와 사귀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은 별로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 쪽은 당연히 몇 년 내에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둘은 서로 평등하다고 생각을 해도 가족들이 아닐 수 있고 설사 가족들이 전부 괜찮다고 해도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자는 좀 더 가정에 종속되고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권인호 혼자 살아도 힘들고, 같이 살아도 힘들고. 동성이든 이성이든 같이 살아도 어려움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다양한 삶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제도나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정상가족'만 해당이 되니까 말이지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 여기로 간다고 봐요. '정상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등과 불만을 갖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비혼'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정치적이고 힘이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동반자법도 입법이 되면 우리의 인식 틀을 바꾸게 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네?
그럼 가족이지! 공동체지!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아요.

임훈민

시대가 이끌어 낸 '생활동반자법'

주혜진 뉴노멀 시대의 친밀한 관계 변화가 제도적 변화도 이끄는 때가 온 거죠. 그것의 신호탄이 '비혼'이라면, '비혼'의 삶에 대해서 도와주고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인호 생활동반자법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해주자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당장 동거에 대한 것만 해도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데다가, 생활동반자법은 발의도 못한 채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정수정 동성이든 이성이든 다른 사람과 생활공동체를 꾸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 이외의 형태여도 보호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죠. 저도 지금은 혼자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누구랑 같이 살고 싶을 때 생활동반자법이 있으면 아무래도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주혜진 특히 서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필요한 게 생활동반자법이더라구요. 그런데 그 외에도 생활동반자법이 친밀한 관계 속의 폭력이나 착취에 대해서도 보호해 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동반자법이 다양한 관계를 인정해줄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불편함이 한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느리더라도 여성들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수정

임훈민 우리는 결합하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함께 형성했던 재산같은 것들이 법적으로는 완전히 한쪽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주혜진 그렇죠. 현재는 결혼한 사람들만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 헤어질 때 나눠야 할 자산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죠.

임훈민 제도의 힘이라는 것이 사실 실질적인 보호나 법적인 자격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제도 위에서 생각을 하게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카시트가 의무화 되기 전에는 카시트가 없어도 아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카시트 없이 아이를 차에 태우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생활 동반자법도 입법이 되면 우리의 인식 틀을 바꾸게 될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네? 그럼 가족이지! 공동체지!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아요.

정수정 맞아요. 처음에는 필요가 있어 만들어졌지만 이후에는 이것에 영향을 받아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상깊게 읽었던 책의 구절이 있는데, 위선의 순기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의 말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세대가 말만 앞세우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는 그 말을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옮길 것이다.' 말 뿐만 아니라 규범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제 '비혼'은 삶의 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권인호 제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비혼'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미혼자들은 선택, 트렌드, 자유, 긍정적, 경제 부담 등의 단어를 제시했고, 기혼자들은 자유, 외로움, 책임감, 공유 등의 단어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저는 응답보다, '비혼'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게 뭐야?" 하고 되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훈민 저도 진짜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을 때 2005년에서 2018년 사이에 필요한 편이라는 의견이 남성은 71.4%에서 50.5%가 됐어요. 여성은 49.2%에서 28.8%로 남녀 모두 20%p 이상 떨어졌어요. 또 다른 조사에서 결혼한 남성이 결혼하지 않은 남성보다 행복하다에 대해 찬성 비율이 2006년 63%에서 2016년 50.4%로 12.6%p가 떨어졌어요. 여성의 경우도 56.5%에서 45.6%로 10.9%p 떨어졌고요. 사람들이 결혼과 행복을 별개로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혜진 그렇죠 세상이 바뀌어서 결혼이 삶의 기본 과제 목록에서 없어지고 있는데 계속 법과 제도에서는 기본 과제로 가정한 채 가니까 어긋남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 어긋남 사이에서 특히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는 존재는 취약하고 어린 여성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정수정 자꾸 '저출생'을 젊은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데, 저는 새로 태어날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사람한테 잘했으면 해요. 살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낳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출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단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임훈민 저도 누가 개인적으로 결혼 어때?라고 하면 결혼까지는 '오케이'



하겠지만, 출생은 어때?라고 물어보면 '아 모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수정 '비혼'인데 애를 낳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비혼'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랑 결혼하는 것은 별로인데 애는 낳고 싶어.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혜진 어른들은 '강아지나 키운다'고 그러시지만, 실상은 애를 낳고 싶고, 새로운 생명을 돌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 못 시키는 상황이 문제라고 봐요.

정수정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성과 결혼해서 살면 행복한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권인호 저는 사랑하는데 아이를 같이 기를 거면 기존의 통념처럼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키우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남자 없이 낳아서 키워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등장했다는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임훈민 저는 대단한 선택인 것 같아요. 혼자양육한다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있으면서도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 싶어요.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평등함 당연하게 요구해야

권인호 저는 '동료시민'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한겨레21에서 작년에 '90

년대생의 평등한 연애'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미래의 연애 관계는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연애이자 동료로서의 연애가 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동료시민의 핵심은 사회적인 차별에 대해 같이 공감하고 동등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비혼'이 동료시민으로 가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를 갖지 않을까 싶어요.

주혜진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동등한 인간으로 서로를 보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거부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이런 말을 했었죠. '남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남성은 남성만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할 뿐,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은 대상화되고, 타자화되어서 도구로만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였어요. 저는 그게 4B 운동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임훈민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불편해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부터 개선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 관심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잖아요.

정수정 오히려 이해하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한 번 깨닫고 나면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 보여서 한동안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전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요. 그 모든 불편함이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느리더라도 여성들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혜진 아픈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새로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대화를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비혼/반혼 여성과 4B 운동



윤김지영 | 페미니스트 철학자,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조교수

비혼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2019년 12월 4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여성 57%, 남성 37.6%가 ‘결혼할 의향이 없는 편이거나 절대 없다’”¹⁾는 의사를 밝혔다. 이제 결혼은 인간의 통과 의례이자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절차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여기서 비혼이란 아닐 비(非)에 혼인 혼(婚)이라는 글자의 조합으로 기존의 1인 생활자를 독신으로 부르던 방식이나 미혼으로 부르던 것에서 벗어나 있다. 비혼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결혼 제도로 편입되기 전의 단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비혼은 더 이상 결혼을 필연적인 삶의 표본으로 선택하지 않겠음을 선택하는 행위이다. 비혼이라는 용어를 넘어, 반대할 반(反)에 혼인 혼(婚)이라는 반혼이라는 용어가 2015년 이후 등장한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새로이 채택되기도 했다. ‘반혼’이라 함은, 결혼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겠다는 비선택의 소극적 의미보다도 훨씬 더 강한 뉘앙스를 띠고 있다. 왜냐하면 반혼은 가부장제를 유지시키고 존속하게 만드는 결혼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 대항 실천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에서 비혼/반혼이라는 두 용어를 함께 쓰는 방식으로 시대적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1) 중앙일보, “남자 없이 잘 살 수 있다” 늘어나는 비혼여성공동체. 중앙일보 2020년 1월 2일 기사

가부장제의 울타리 건너내기

너무도 사적이며 너무도 개별적인 사안으로 여겨지던 연애와 섹스, 결혼과 출산의 문제가 가장 정치적이며 가장 이데올로기적인 장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혼제도에 대한 거부만이 아니라, 연애와 섹스, 혼인과 출산에 대한 네 가지 거부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연애 거부, 이성애 섹스 거부, 혼인 거부, 출산 거부라는 4B(4非) 운동은 아닐 비(非)자가 네 개나 오는 점에 착안하여 4비운동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으며, 영어 알파벳 B와 동일한 발음에 의해 4B 운동으로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4B 운동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네 가지 여성생존 전술의 판본이라 할 수 있던 연애와 섹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발본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적 생존과 중장기적 안전망의 확보를 위해, 필연적으로 편입해야 했던 삶의 영역들이 이제 여성들의 생존을 위해 거부해야 할 대상인 아닐 비(非)의 장으로 전환, 확장되고 있다. 즉 여성들에게 있어 사랑과 연애, 결혼, 출산이 평온과 안전의 보루가 아닌, 남성폭력에 노출되는 위험 지대이자 종속 지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비혼/반혼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의존성의 고리마저 모두 끊어낸 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가부장제에 편입한 대가로 주어지던 반대급부들마저 모두 포기한 이들이라 할 수 있다. 남성중심 사회는 여성들의 가부장제 편입과 복무를 유도하고자, 최소한의 안전과 중장기적 비전을 결혼 제도 내에서만 확보 가능한 것으로 제한해 왔다. 그런데 비혼/반혼 여성들은 이 사회가 제공해주는 사회적 존재 기반이자 경제적, 물질적, 상징적 제도의 울타리들을 걷어내고서라도 가부장제의 숨통을 끊고자 한다.

비혼/반혼을 실행하는 여성들은 결혼 적령기라는 주류적 인생의 축 자체를 바꿔 놓은 이들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신체를 욕망할 만한 몸, 선택될 만한 몸으로 개발, 유지해야 할 대상으로 더 이상 보지 않는다. 여성들에게 지금까지 허락되어온 전형적인 미래와 꿈의 경로에는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욕망과 배려, 따뜻함, 희생, 겸손, 부드러움이라는 여성적 가치와 적당한 현명함과 과도하지 않은 지성, 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소박한 직업관 등이 수놓아져 있었다. 이 사회가 허락한 여성과 도덕성, 여성과 희생, 여성과 배려, 여성과 공감, 여성과 비폭력 등을 익숙하게 조합해내는 방식을 교란시키고 있는 그들은 가장 낮설고도 가장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으로 이 세계에 도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성과 권력이지, 여성과 야망, 여성과 도전 등을 새로이 조합해 봄으로써, 여성 삶의 전형성과 순응성을 부수고 있다. 그들은 여성에게 부과되어온 전형적 미래의 경로들을 개편해버림으로써, 결혼 적령기를 더 이상 생애주기의 중심축으로 배분하고자 하지 않는다. 나이가 젊음과 미모를 궁극적인 여성의 가치로도 두지 않는다. 그리하여 여성에게 있어 나이 들어감의 의미를 재정의할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를 새로이 발명하고 삶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상상해보고자 한다.



4B^非 MOVEMENT

비혼여성의 삶 전시하기

이 사회의 10대, 20대 여성 대부분은 자신의 30대와 40대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이대로 여기도록 주입 받아왔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25살만 넘어도 샵페너-상장 폐지녀라는 교환가치가 떨어진 상태-로 희화화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성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곧 존재가치의 추락이자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강제되어왔다. 그리하여 젊은 여성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사범위가 20대 중후반으로만 제한되는 효과를 낳았다. 이로써, 30대 이후의 여성의 삶 자체를 흉물스럽고도 죽음에 가까운 것으로 부정적으로 의미화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여성들은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라는 4B 운동을 통해, '여성의 삶은 60대부터'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 자신의 몸이 노화와 죽음의 조건 속에 가로 놓여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대신, 이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젊음과 아름다움이 아닌, 다른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단기적 성공이 아닌,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여성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이행하게 된 것이다. 20대 중후반의 나이대로 삶의 전망이 협소화되어 있던 여성들이 이제 60세 이후의 나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삶의 가치 지평은 물론 여성의 존재 지평이 확대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비혼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결혼 제도로 편입되기 전의 단계를
가라키는 것도 아니다. 비혼은 더 이상 결혼을
필연적인 삶의 표본으로 선택하지 않겠다는
선택하는 행위이다.

욕망 받을 만한 몸으로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며 남성에 의해 선택받는 단기적 성공 스토리를 사회적 환상으로 붙들고 있는 대신, 이제 여성들은 자신의 청년기와 장년기, 노년기를 스스로가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남성과의 연애와 결혼이 여성 인생 서사의 행복한 마무리가 아님을 깨닫게 된 여성들은 남성에 의해 선택받는 삶이 아닌, 자신이 선택해나가는 삶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삶이란 매 순간이 시작점이자 도착점이며 변곡점이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여성의 삶에서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경제적 독립과 정서적 독립, 건강과 자기 긍정 에너지, 자기 신뢰감, 지속적 배움 역량과 사유 역량을 키우는 것 등에 중요성을 부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해나가는 모습들을 사회적 가시화의 장에 들어오게 만들고자, #반혼여성의_삶 또는 #비혼여성의_삶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가시성의 확보는 여성들이 다르게 존재하고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스스로를 가치화할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의 표출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가장 화장이 잘 된 모습을 셀카에 담아내거나 자신의 몸무게를 찍어 올리거나 새로 산 화장품 신상들을 인증했다면, 이제 비혼/반혼 여성들은 자신들이 하루 동안 성취한 공부일지나 공부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거나 근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일지를 공유하거나 탈코르셋을 한 자신의 얼굴이나 머리칼을 전시한다. 남성욕망에 부합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보여질 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던 전형적 여성의 몸과 행동양식으로부터 벗어나, 여성들에게 감히 허락되지 않아 왔었던 것들-화장하지 않은 내 얼굴의 전시, 운동하는 몸의 박진감 넘치는 모습과 체력 증강된 모습 전시 등-을 사회적 가시화의 장에 기입하고 있다.

나아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으로 여겨져 왔던 일상적 소비패턴-신상 화장품 모으기, 맛집 탐방하기, 네일아트 하기 등-에서 벗어나, 더 큰 야망과 꿈을 향한 발걸음을 인내심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구체화해나가는 여정을 공유해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한 여성의 미래가 개인의 성공서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여성들을 위한 새 길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서로에게 일깨우고 있다. 비혼/반혼 여성들의 자기 삶 전시와 공유를 통해, 그들의 하루가 고립된 길이 아니라, 서로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응원자이자 연대자들이 함께 나아가는 길임을 인식하게 만든다. 비혼/반혼 여성들은 더 이상 남성들이 획득한 화려한 보상효과나 트로피로 자신의 몸과 삶이 일방적으로 전시, 공유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남성욕망경제가 허락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삶을 SNS 계정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시해나가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유튜버를 표방하고 나선 유튜브 채널들-혼살비결, 하말념 많 등-이 비혼/반혼 여성의 삶을 영상으로 제작, 공유하거나 전국비혼지도를 통해 지방의 비혼/반혼 여성 공동체들-광주의 비컴트루, 대전의 비혼 후깅 등-을 직접 만나 이들의 삶을 소개하기도 한다.

비혼/반혼 여성 공동체

여성들에게 있어, 비혼/반혼은 홀로 서기라는 단독자로서의 개인적 삶으로만 조망되는데 그치지 않는다. 남성 카르텔에 맞서는 비혼여성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4B 운동이 6B 운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6B라 함은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에 비소비, 비뉘비가 더 추가된 운동형태를 지칭한다. 비소비란 여성혐오적 기업에 대한 소비 거부라면, 비뉘비란 '비혼여성은 비혼여성을 돕는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비혼여성들이 어떻게 기존의 가족 구조나 사회체제에 순응적으로 편입하지 않고서도 공동체의 감각과 연결의 감각을 배양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리킨다. 또한 이는 시민 정치의 새로운 축으로 1인 가구가 부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치적 의식화의 구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비혼/반혼 공동체라는 집합적 공간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에미프(emif)나 은평 시스터즈, 비혼 후깸, 비컴트루(Become True)–'비혼이 현실이 되는 곳', '야망이 실현되는 곳'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진 공동체 등과 같은 비혼/반혼 여성 공동체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비혼/반혼 여성의 삶이 고립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의 기획과도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비혼/반혼 여성들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재테크 정보부터 자취 정보, 주거 정보, 지역 정보라는 매우 실질적이며 유용한 정보를 나누고 있다. 이를 통해, 가부장제에서 이탈하는 행위란 위대한 저항 기술의 폭발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을 한 발 한 발 내딛어나가는 소박하고도 치열한 생존 기술의 지구력에서 오는 것임을 보여준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돌봄을 오롯이 책임지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식단을 짜는 행위부터 일정한 운동량과 일조량을 통해 우울 패턴에 빠지지 않는 법, 적금과 저축, 주식 등에 대한 실용적 압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꾸준히 닦아나가는 법, 전세자금 대출 시 유의사항과 부동산 관련 법률들의 지식 공유, 주거 빈곤의 멍에 허우적대지 않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정보와 주택청약금에 대한 정보 나누기 등을 하는 것에서부터 그 길의 터가 비로소 열리기 때문이다.

이제 여성들은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라는
4B 운동을 통해, '여성의 삶은 60대부터'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

1인 시민 정치의 축

비혼/반혼은 인생의 레이스를 홀로 더 빨리 더 잘 뛰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비혼/반혼의 삶은 전혀 다른 생의 레이스를 개척해나가는 이들과의 함께 달리기, 이어 달리기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어 달리기만이 더 나중에 오는 미래 세대의 여성들에 대한 열렬한 응원이자 따뜻한 연대와 결속, 계승의 행위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맨 땅에 헤딩하듯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비혼/반혼의 삶 앞에서 머뭇거리다 다시 가부장제로 되돌아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비혼/반혼의 궤적에서 몇 발자국을 먼저 내딛은 이들이 그들의 개척 경로를 공유하거나 경제적, 심리적, 정치적, 물질적, 문화적 기반들을 탄탄히 구축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비혼/반혼이라는 더 나은 대안적 생의 지류에 더 많은 여성들이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혼/반혼 여성공동체를 직접 기획, 실현해나가고 있는 비컴트루, 비혼 후깸, 에미프, 은평 시스터즈 등의 행보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발명해내는 일이자 1인 가구 중심의 정책 개편을 위한 제도적 변화의 축이 될 것이다. 이는 비혼여성을 위한 1인 가구법, 비혼여성 공동체를 위한 생활동반자법 또는 파트너 등록법, 여성 안전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 조치, 여남 임금 격차 철폐, 성별 고용승진 차별 금지법, 여성 1인 가구 주거정책 또는 여성 공동체 주거 정책 등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위한 시민 연대 정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견고한 남성 카르텔에 맞서 여성이 여성을 돕고 이끌어주는 비혼여성 카르텔의 구축은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 여성들의 인생 서사가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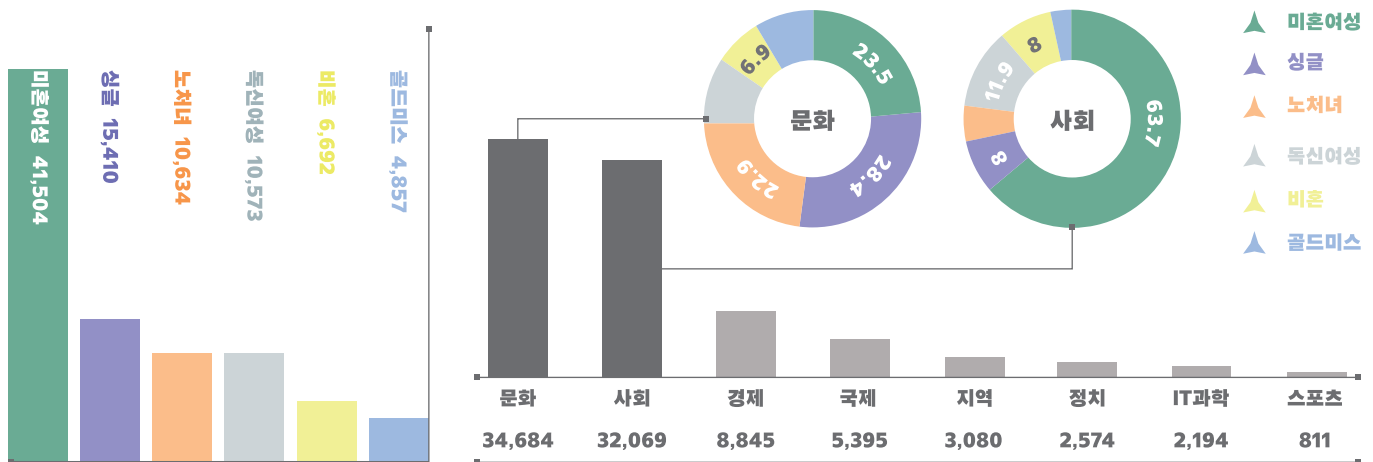
뉴스 빅데이터로 살펴본 ‘이륙하는 비혼’

글 · 김성곤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디자인 · 신선아 | 여성주의 잡지 BOSHU

‘미혼 여성’, ‘노처녀’, ‘싱글’, ‘독신 여성’, ‘골드미스’ 등 우리 사회에서 결혼 하지 ‘못’한 여성을 포장하여 부르던 말이다. 결혼을 인생의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절차로 여겼던 시절의 우리 사회는 결혼을 ‘못’한 사람, 특히 여성을 이러한 호칭으로 부르며 결혼을 강요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결혼을 ‘안’한 사람들이란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면서 ‘비혼’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¹ 관련 연구에서 1990년대 후반 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비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으며,² 비슷한 시기부터 언론에서 ‘비혼’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결혼 하지 않은 여성을 언급한 기사는 얼마나 나왔을까?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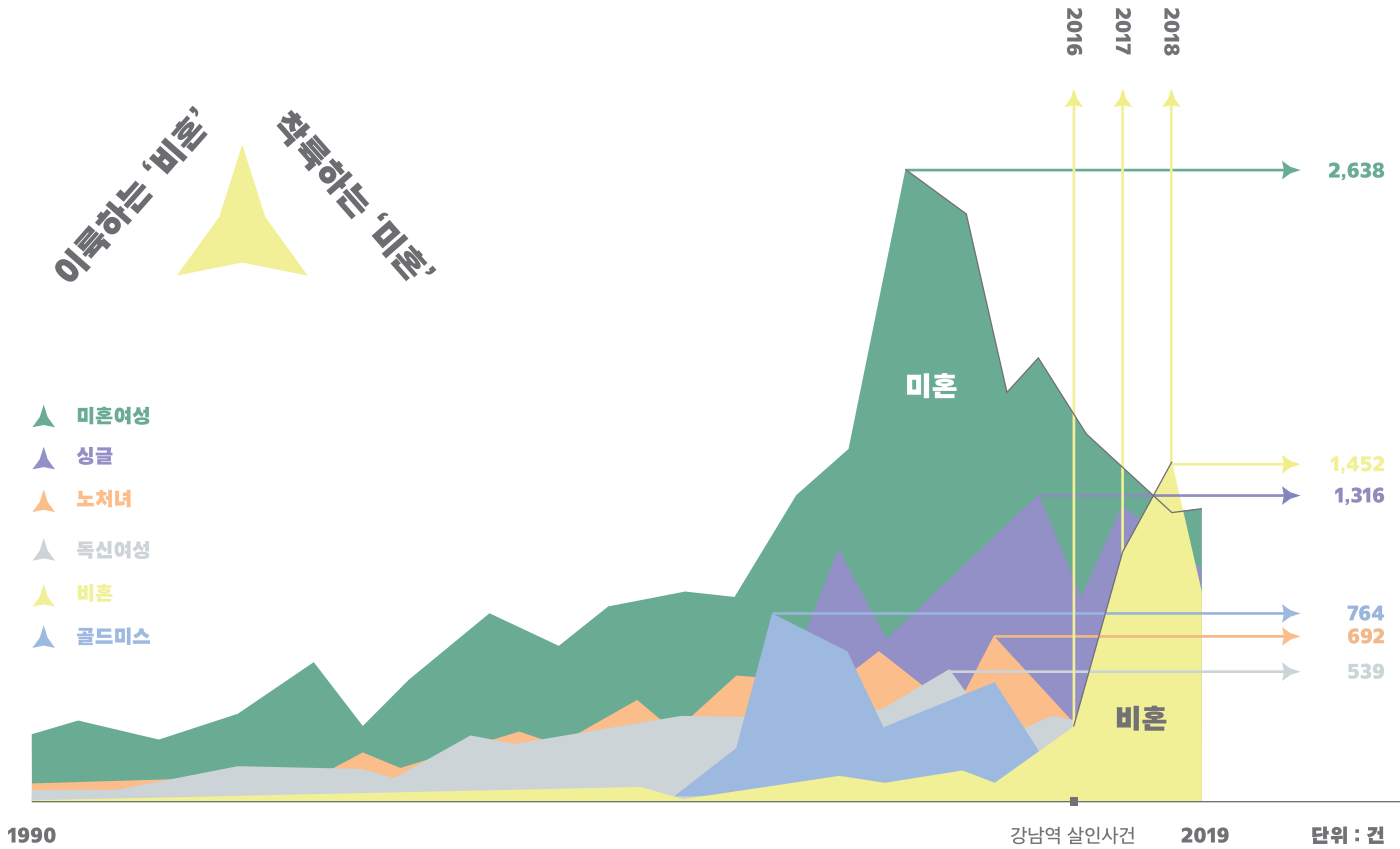
키워드별 뉴스 기사 수 (1990-2019)

빅카인즈³를 통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발행된 뉴스를 키워드별로 검색한 결과 ‘미혼 여성’ 41,504건, ‘싱글’⁴ 15,410건, ‘노처녀’ 10,634건, ‘독신 여성’ 10,573건, ‘비혼’ 6,692건, ‘골드미스’ 4,857건 순이다.

분야별 키워드 사용 비율 (1990-2019)

분야별 신문기사의 키워드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6가지 키워드는 문화와 사회 분야에서 높은 사용 비율을 보인다. 문화 분야에서 언급된 키워드는 ‘싱글’(28.4%), ‘미혼 여성’(23.5%), ‘노처녀’(22.9%), ‘독신 여성’(9.7%), ‘골드미스’(8.5%), ‘비혼’(6.9%) 순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미혼 여성’(63.7%)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독신 여성’(11.9%), ‘싱글’(8.0%), ‘비혼’(8.0%), ‘노처녀’(5.3%), ‘골드미스’(3.2%)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재구성



연도별 키워드 사용 횟수 (1990-2019)

연도별 키워드 사용 횟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미혼 여성'은 1990년부터 꾸준히 사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2013년에 2,63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로 돌아섰다. '골드미스'는 2009년, '독신 여성'은 2012년, '노처녀'는 2014년, '싱글'은 2015년에 각각 정점을 찍고 이후 사용 횟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비혼'은 사용 횟수가 미미했으나 2017년(1,167건)과 2018년(1,452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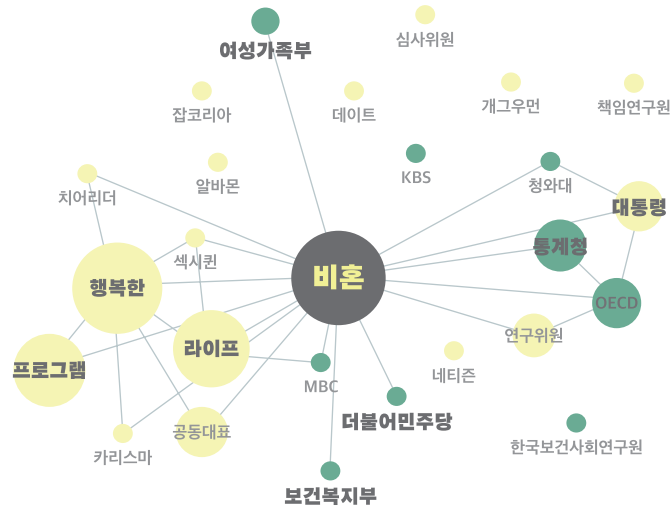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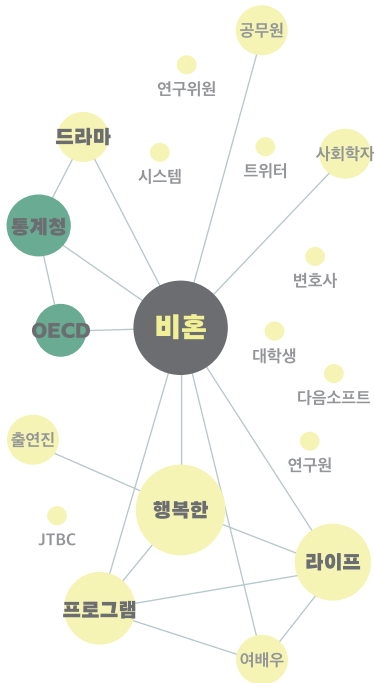
자료 : 빅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재구성

- 1 1990년 2월 26일 무등일보 기사에 '비혼'을 사용한 기사가 있으나, 일본의 '비혼시대'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비혼' 인식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인식을 반영하여 '비혼'을 사용한 최초의 기사는 1999년 12월 16일 경향신문의 「혼전동거 '살아보고 결혼합시다' 찬성 많아」의 기사로 판단하였음
- 2 ①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 (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② 이재경. (2015). 가부장제 이후의 한국 가족 -정상성에서 유연성으로-. 한국문화연구, 29(0), 283-310.
 ③ 정현희. (2011). 한국 사회의 여성. 여/성이론, (25), 233-240.
- 3 빅카인즈(BIGKinds)는 다양한 언론사(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로부터 수집한 뉴스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만든 뉴스 분석 서비스임. 최대 54개 매체에서 1990년부터 현재까지 발행한 약 6천만 건 뉴스 콘텐츠를 검색하고 활용 가능함
- 4 '싱글' 키워드 검색의 경우 음악 앨범이나 골프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같이 검색되었기 때문에 '결혼' 키워드를 추가하여 검색한 결과만을 정리하였음

‘비혼’, 최근 4년간의 변화

비혼 관계도 (2017-2020)

2015년부터 뉴스에서 ‘비혼’ 사용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미혼 여성’을 제치고 가장 많은 사용 횟수를 기록했다. 따라서 2020년을 포함하여 최근 4년간 ‘비혼’과 연관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키워드**와 **기관**을 중심으로 관계도 분석⁵을 했다.



2017

19대 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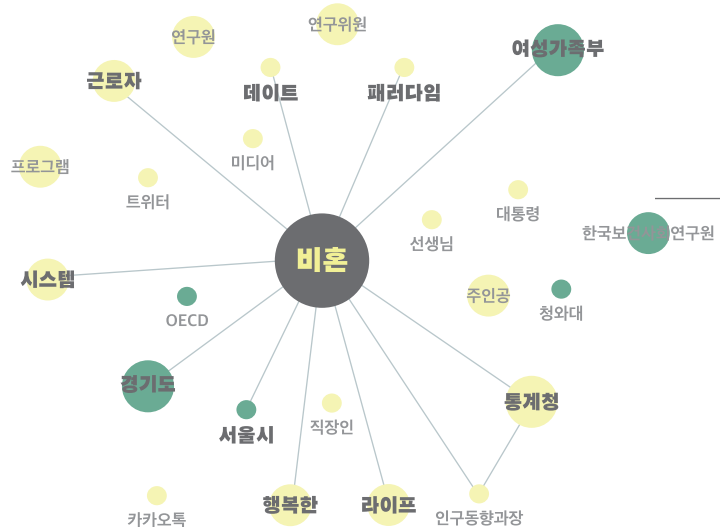
2018

‘비혼’과 관련된 키워드로 ‘행복한’, ‘라이프’, ‘프로그램’, ‘여배우’, ‘출연진’이 나타난 것은 ‘비혼’을 주제로 한 ‘비행소녀’⁶라는 예능 프로그램 관련 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관으로는 ‘통계청’, ‘OECD’와 관련도가 높았다.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통계청’이 높은 관련도를 보인다. 또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부기관과 정당이 새롭게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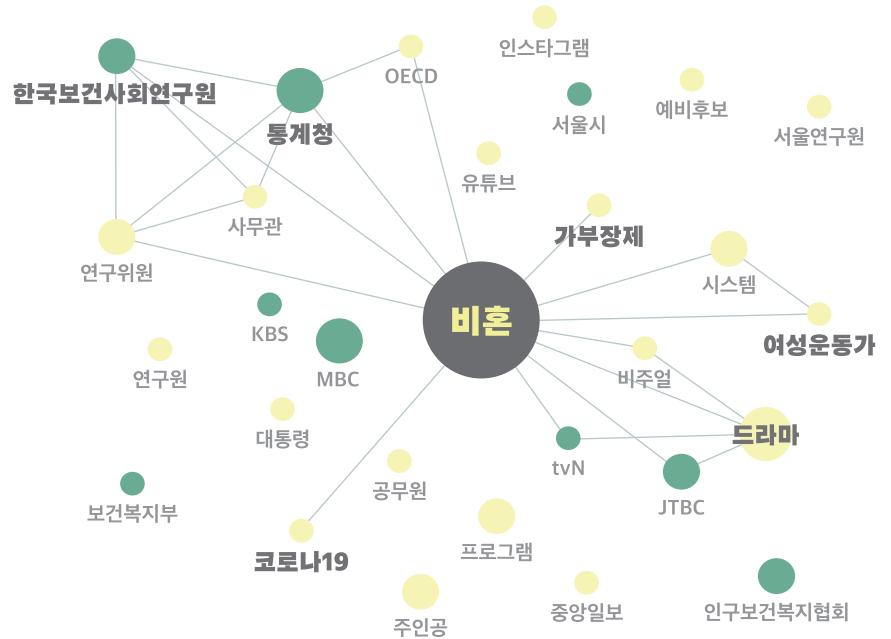
2019

‘통계청’, ‘여성가족부’, ‘행복한’, ‘라이프’가 ‘비혼’과 높은 관계도를 형성했으며, ‘시스템’, ‘근로자’, ‘데이트’, ‘패러다임’, ‘서울시’, ‘경기도’ 등이 ‘비혼’ 관련 기사에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0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인 키워드는 ‘드라마’다. 분석에 사용된 기사를 확인한 결과 ‘비혼’을 주제로 한 드라마 관련 기사가 많았다. 그 밖에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관련도가 높고, ‘가부장제’, ‘코로나19’, ‘여성운동가’와 같은 단어들이 새롭게 등장한다.



‘비혼’ 그리고 ‘대전’

저출산	81회	🔍
여성들	79회	🔍
보슈	50회	🔍

‘비혼’과 ‘대전’을 포함하는 뉴스 속 키워드

대전에서 ‘비혼’에 대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비혼’과 ‘대전’이 포함된 신문기사에서 어떤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는지 연관어 분석⁷ 결과를 살펴보자. 2017년부터 2020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검색된 기사 수는 62건이다. 62건의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저출산’(81회)이었으며, ‘여성들’(79회), ‘보슈’(50회)가 그 다음 순이다.

그 외 키워드로는 **고령화(42회), 함께출산을(33회), 여성주의(21회), 非 婚(5회), 가족 형태 수용 공론화(3회)** 등이 있다.

- 관계도 분석은 검색 결과 중 정확도 상위 100건의 뉴스 본문을 형태소 분석하여 명사상당어구를 추출한 뒤 개체명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개체명을 추출한다. 이때 개체명의 관련기사 건수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서 시각화한 형태로 보여준다. 색깔별로 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를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키워드와 기관만 사용하였다. 가중치(관련기사 건수)는 3으로 설정하였다.
- 비혼소녀는 ‘결혼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를 모토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리얼 라이프 예능프로그램으로 ‘비혼이 행복한 소녀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MBN에서 제작하였으며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방송하였다.
- 연관어 분석은 토픽 랭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색 결과 중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순으로 출력해 보여준다.

반려동물과 함께 홀로 산다는 것



최명주

나는 탄이, 용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산다(좀 더 많은 반려동물이 있지만, 전부 언급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생략한다).


원래 자취를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했었다. 모던한 가구로 집을 채우고 은은한 조명과 호텔식 침구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삶.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취를 꿈꾸는 사람들은 한 번쯤 가졌을 로망이다.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그런 삶이 가능 할 리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털이다. 오늘 치워도 오늘의 털이 굴러다니고 내일의 털도 굴러다닌다. 화장실이고 침실이고 가릴 것 없이 먼지와 털이 함께 쌓이고 검정 옷에는 고양이의 털이 확실한 자기주장을 한다. 안타깝게도 어지르는 건 셋이지만 치우는 건 하나다.

끝없는 털의 산을 지나면 이번에는 병원비라는 산이 다시금 내 앞을 막는다. 특히 용이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을 보고 뒷일은 생각도 못하고 구조한 아이인데, 병원비가 참 많이 들었다. 이후 임시보호를 하며 입양 보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중성화를 하며 당뇨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입양이 힘들다는 생각에 함께 살게 되었다. 현재는 당뇨병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용이를 구조한 것을 후회하지 않지만, 생활이 안정 되면 둘째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어그러졌다. 역시 인생은 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게 어영부영 두 마리의 반려묘와 함께 살게 되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묘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고양이와의 만남은 인연이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려묘와 함께하는 삶은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혼자사는 것은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조금 외로워진다. 고향집에서 살 때 나는 내가 독립적이고 외로움을 잘 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왜 사회적인 동물인지 자취하고 나서 알았다.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내가 '키워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려동물이 사람을 키워주고 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애정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존재만으로도 안정감을 준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안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물을 단순히 애완동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비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그리는 나의 삶에는 언제나 탄이와 용이가 함께 하고 있었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할 내 가족, 내 반려묘다. 10년 뒤에도 탄이와 용이 곁에서 이 글을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냐옹~. 



어쩌다 비혼으로 살아가기



장동현

“아니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처음 만난 상대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적잖이 당황스럽다. 보통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눈이 높아서 결혼을 안했거나 또는 연애 하려는 노력을 안 해서라고 쉽게 단정 지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혼을 안한 것이 내 잘못이라는 시선은 불편하다. 단지 내 앞가림을 하기 위해 바쁘게 살다가 나이를 먹게 되었고, 과거에 비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줄어서 정말 ‘어쩌다 보니’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했을 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결혼을 안한 사실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가 나에게 있음을 끊임없이 주시시키려고 한다.

어느 순간부터 가끔 누가 나이를 물어볼 때면 내 나이가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쇼핑을 하러 나가보면 매장 직원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은 언제부터인지 아버님이 되어버렸고 나는 있지도 않은 사모님과 아이를 둔 가장이 되어있다.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는 아직 총각이라고 친절히 설명을 해주곤 했지만 이제는 으레 그러려니 한다. 냉정한 현실이 야속하기만 할 뿐이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여자친구는 있니? 빨리 결혼해야지”라는 친척들의 질문들에서 벗어나고 싶다.

부모님 세대에는 20대에 결혼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3포세대를 넘어 5포, 7포, N포 세대로 불리면서 과거에 비해 취업, 연애, 결혼을 하기가 힘든 현실이다. 물론 나는 이른바 ‘N포 세대’란 단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잠시

뒤로 미뤄둔 것뿐, 결코 포기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나이 서른이 넘어 대학원에 진학하고, 직장일과 학업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 누군가를 만날 기회조차 얻기가 힘들었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이다.

공부보다 연애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 것도 이즈음 이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나에게 충실하기로 결심하였다. 삼십대의 마지막 해에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는 마흔이 되기 전에 해외여행 가보기였다.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보니 방송으로 보는 것 보다 훨씬 다양한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다. 그동안 몸 관리에 소홀했던 것을 깨닫고 다이어트와 운동도 시작하였다. 6개월 동안 15kg 감량에 성공하였고, 지긋했던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나니 내 자신에게 당당해질 수 있었다. 처음으로 자그마한 화분을 사서 장미허브와 스투키라는 식물도 길러보았다. 장미허브는 손으로 쓰다듬어 줄수록 진한 장미향을 내뿜었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잎이 말라버렸다. 반면에 스투키는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어도 될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다. 이들을 보면서 나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장미허브처럼 세심한 배려와 이해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때론 스투키처럼 당당하고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누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다른 이의 시선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하루하루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다. 오늘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모든 싱글들을 응원한다. 

대전 비혼여성 커뮤니티 비혼 후 갬

〈비혼후갬〉은 대전 페미니스트 문화기획자 그룹 BOSHU가 운영하고 있는 대전 유일의 비혼 여성 커뮤니티다. 2019년 5월 처음으로 모집을 시작해, 현재는 백 명에 가까운 대전 비혼 여성들과 함께하고 있다. 2019년 비혼후갬에서는 비혼 여성이 자신의 가치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비혼 강연, 워크샵 등을 매달 열었다. 어떤 주제가 있었을까?



비혼후갬 멤버십 가입 문의
BOSHU 인스타그램: @boshu.mag
메일: boshumagazine@gmail.com

5월 기초강연x멤버십 설명회 〈식구를 찾습니다〉
비혼은 혼자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BIYN 보스턴 피플팀의백화원님과 함께 비혼 여성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유형을 고민했던 시간





12월 연말 파티 <비혼식>

5월엔 친구 결혼식, 10월엔 친척 결혼식 다녀오느라 힘들었던 비혼 여성들이 드디어 주인공이 되었던 '비혼식'. 촛불도 붙이고 비혼 서약문도 낭독하고 남은 비혼 여성들 잘 살라고 덕담도 주고받았다.



10월 축구 원데이 클래스 <바닥 차고 뛰어오르는>

야망 있는 비혼 여성으로 잘 살아남기 위해 체력과 건강은 필수. 여성축구팀 FC우먼스플레이잉 코치님과 함께 땀 흘리며 공을 뱅뱅

2019 비혼후깸

- 5월 기초강연x멤버십 설명회 <식구를 찾습니다>
- 6월 재무 워크숍 <통장 정리>
- 7월 라이프스타일 연극 워크샵 <저 관참은 사람입니다>
- 8월 주거정책 워크숍 <내 집 마련>
- 9월 공구 워크숍 <부수고 다시 짓는 공구 워크숍>
- 10월 축구 원데이 클래스 <바닥 차고 뛰어오르는>
- 11월 멤버십 파티 <B밀4고 클럽>
- 12월 연말 파티 <비혼식>

● 지금까지 진행된 모임

술집 탐방, 채식만두 요리 모임, 정신건강 및 마음챙김 클래스, 같이 영화 보러가기, 이민경 작가와 함께하는 글쓰기 클래스, 계족산등산, 보드게임 소모임, 온라인 반려동물/식물 모임, 독서 클럽, 소독제 만들기 모임, 클라이밍 모임, 온라인 비건 야식 모임, 여성들의 문장 낭독 온라인 모임, 반려견 모임, 축구 원데이 클래스, 온라인 음악 감상실.

● 앞으로 생길 모임

디스크 클래스, 재테크 소모임, 테니스 소모임, 여성주의 연극 클래스, 풍물놀이 클래스, 비혼 교사 모임, 미니진만들기 클래스, 비건요리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제안해주실 모임.

2019년부터 비혼후깸에 참여한 멤버에게 물었다.

“비혼후깸이 일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가족 없이 타지에서 지내다보니 고립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어요. 전에는 sns나 커뮤니티, 가끔 있는 시위를 통해서만 연대해오다 오프라인 만남을 해보니 감정이 벽차오르더라고요. 집순이였던 제가 활동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동네 친구도 생겨서 서로의 집에 놀러가 밤새 놀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녀왔어요. 비혼 공동체가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셈이죠. 그리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막막했었는데 집 마련, 비혼 메이트 찾기, 비혼식 등 강의를 참여하고 나니 명확한 비혼의 삶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에게 이 공동체는 '비혼의 길잡이, 든든한 지원군' 이에요.”

2019년 한 해 동안 비혼후깸 멤버들과 함께하며 느낀 것은 삶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혼 친구 만들기를 절실히 원한다는 것이었다.

‘주변엔 다 결혼한다고 하고, 어른들은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요.’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혼자 남게 될까봐 무서워요.’ 비혼을 결심한 이후 우리는 외로워지는 시간을 만난다.

2020년부터 비혼후깸 슬랙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유도 우리끼리 더 끈끈해질 수 있는 크고 작은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서다. 벌써 슬랙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연극 프로젝트 <연극이 끝나고 난 뒤>를 무대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대전에서 30년 동안 극단을 운영해온 여성 연극인을 모셔 연기를 배우고, 직접 대본을 적고, 극을 올린다. 해당 프로젝트를 웹 예능으로 동시 제작, 배포해 지역에 살고 있는 비혼 여성의 존재를 가시화하고자 한다.

비혼후깸은 비혼 여성들이 함께, 오래, 잘 살 수 있는 대전을 꿈꾼다. **W**

*슬랙(slack): 클라우드 기반 커뮤니티 도구. 네이버/다음 카페와 유사.



〈여성 사범님과 함께하는 여성태권도 클래스〉 반응이 뜨거웠던 대구여성태권도클래스 활동

경상도 비혼공동체

Wolves In The Hell

여성은 모두 늑대이고, 우리는 가부장제라는 지옥을 벗어나
함께 달리기 시작한 늑대들이다

경상도 기반 비혼여성 커뮤니티, 'WITH'는 2019년 11월 19일에 태어났다. 수도권외의 경우 비혼여성모임이 경제·운동·복스터디 등 다양하게 활성화되지만, 지방은 모임은 고사하고 내 주변에 나팔고는 비혼여성이 없구나라는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우리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비슷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으로 뭉치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구 페미니스트 모임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경상도의 비혼여성들을 아우를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었다.



비혼공동체 'WITH'
aahignrrsty@naver.com
가입문의 트위터 @WITHofficialtw

'WITH'는?

비혼인구가 늘어나며 비혼 관련 커뮤니티나 공동체도 여럿 생겨나고 있지만, 비혼공동체 'WITH'는 몇 개월 만에 400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회원 수로만 보면 단연 독보적이다. 이렇게 가파른 회원수의 증가는 경상도 비혼여성들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성차별과 여성을 꾸밈과 자궁의 역할로만 한정 짓는 보수적이고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문화가 만연한 경상도에서는 여성들이 차별이나 폭력을 겪는 일이 만연하다.

'Wolves In The Hell' = 'WITH'. 이걸로 충분한 표현이 되지 않는가? "여자는 원래 늑대이고, 우리는 경상도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다" 농담 반 진담 반 섞어 만든 슬로건이지만 그 속에는 한이 맺혀있다. 회원들이 만나서 친목 모임을 하면 나중에는 여성폭력 피해자 자조 모임이 되어 서로 울다가 웃기를 반복한다. 말해도 들어주지 않고 어디에다 토로할 수 없는 고통을 여성들이 서로 만나 상처를 치유하고 살아갈 희망을 얻는다. 그때마다 왜 'WITH'가 존재해야 하는지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워드 회원들에게서 'WITH에 온 후로 삶이 바뀌었다', '고립감에서 해방되었다',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낀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나와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힘을 얻는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비혼여성들은 가부장제를 벗어나 여성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기 시작했다. 여성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겪은 고통을 토로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선언한 늑대들. 존재를 잃매던 사슬을 끊어내고 함께 달리기 시작한 여성들이 만들어 낸 풍경은 얼마나 멋진까. 자기 자신 안의 늑대를 찾아낸 여성들, 그것이 바로 비혼공동체 'WITH'다. 비혼을 선언한 여성들의 삶이 앞으로 더 행복하게 변하기를 바란다.

“
우리는 지옥 속에서 재갈로 입이
틀어막힌 늑대였고 지금 그 사슬을
끊어내고 자유롭게 초원을 달려가리라.
”

● 2019.11.19.	● 비혼공동체 'WITH' 단체 생성
● 2019년 12월	● 워드 크리스마스 파티
● 2020년 1월	● 여성 정치 세미나
● 2020년 2월	● 여성 사범님과 함께하는 여성태권도 클래스 ● 비혼여성 사진찍기 출사여행 ● 클라이밍with-여성클라이밍 동호회 활동
● 2020년 3월	● 이민경 작가님 몸에서 뺀내내는 글쓰기 부산 강좌
● 2020년 5월	● 창원 페미사이드 시위 ● 강남역 살인사건 4주기 추모집회 ● 울산 여성 축구모임 ● 경북 칠곡보 피크닉 ● 부산 오만가지 취미-등산모임


WITH
소모임



▲워드 회원들이 모여 함께 피크닉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분노해 열렸던 창원페미사이드 시위

'WITH'와 함께

'WITH'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획으로 만들어진 소모임이 30여 개에 이른다! 경제 스터디, 운동 동호회와 여성 정치 세미나, 여성 태권도 클래스, 이민경 작가와 글쓰기 수업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 지난 달에는 지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분노하여 창원페미사이드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아직 만들어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정기적인 행사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지만, 지방에서 페미니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비혼여성의 삶에 필요한 정보와 네트워킹을 쌓아갈 수 있는 단단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WITH'는 함께 달린다.

'WITH' 회원 중 태권도 유단자였던 우리의 사범님은 여성 태권도 클래스로 재능기부를 하고 싶었고, 많은 회원들은 오래전부터 운동을 배우거나 태권도를 제대로 해 보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모여서 기초체력 단련, 송판 격파, 태권도 기본동작, 품세 등을 하나하나 맘 흘리며 익혀나갔다. 힘들었지만 우리끼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앞으로 'WITH'는 여성 태권도 클래스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비혼 : 함께 살기의 새로운 가능성, 혼자 살기



주거 독립, 조립형 가족, 퀴어적 상상력

소영현 문학평론가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가 단조로운 패턴을 이루고 있고, 그 패턴의 힘이 꽤 선 한국사회에서도 이제 더 이상 결혼은 생애주기의 필수 아이템이 아니다. 출산과 육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21세기를 사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결혼 하지 않기를 선택하며, 종종 의도하지 않은 채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살기도 한다. 비혼은 심사숙고 끝에 이루어진 비장한 선언이 아닌 것이다.

“

비혼의 선언은 ‘혼자 살기’의 선언이자 이 사회가 모색해야 할 ‘함께 살기’의 새로운 가능성

”

미혼, 독신, 싱글, 비혼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혹은 하지 못한 상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상태, 결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 여전히 공존하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미혼에서 비혼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바뀌어야 했을까.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얼핏 미혼과 비혼 사이의 차이는 아주 미묘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미혼과 비혼은 여전히 결혼 제도를 전제로 한 명칭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차이는 미미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미혼에서 비혼 사이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가 놓여 있다. 그 사이에는 사회를 뒤흔드는 예리한 질문들이 담겨 있다.

대관절, 결혼이 무엇일래? 결혼을 두고 사랑의 결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결혼은 가족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문제는 결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회가 허용하는 가족 제도의 범주가 매우 협소하다는 데 있다. 누구와도 일상을 공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함께 살기’ 형식이 전부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 어떤 형태의 ‘함께 살기’는 정상 범주의 바깥에 놓인 것으로 다루어진다.

한국 최초의 독신 선언 소설

한국의 신여성들은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사회와 불화해야 하는 이상한 요청 사이에서 분열적인 내면을 살아야 했다. 근대 초기 여자유학생을 주축으로 꾸려진 잡지인 『여자계』를 만들기도 한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이자 작가인 나혜석은 명실상부한 한국 최초의 독신 선언 소설 『경희』(1918)를 통해 그 분열적 면모를 전한다. 경희는 교육을 받은 여성이 어떻게 살림을 선진적으로 꾸리는가를 입증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 활동을 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귀한 혼처를 마다하고 부모에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물거품이 되고 만다.

결혼을 하면 평생 좋은 옷에 배부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아버지의 회유의 말에 경희는 “먹고만 살다 죽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금수”일 뿐이지 않은가를 되묻는다. 이 문답 과정에서 유명한 경희의 인간 선언을 만나게 된다.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경희의 독신 선언은 다른 아닌 여성의 인간 선언이었던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

경희의 경우가 그러했듯,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그 행위에 대한 거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 그녀들은, 격렬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여자계』(1917~1920)에 실린 한 글에 의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독신생활을 하겠다는 주장은 일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사회에 헌신하겠다는 이유를 대지만, 대개 그저 핑계일 뿐으로 치부되었다. 나아가 이기심과 허영심의 발로로 비판되었다. 교육받은 신학문을 응용하여 부모를 잘 섬기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서나 여성 교육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던 시대였다. 때문에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는 여성들은 오늘날의 감각에 비춰보아 별레로 비유되는 비난과 다를 바 없는 “신여자계의 악마”이자 “박테리아균”으로 매도되었다. 『춘강』, 「신여자의 자각」, 『여자계』 4호, 31~32쪽)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언한 여성들을 두고 이기심과 허영심을 이유로 비난하는 일이 100년 전 조선사회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의 급격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2016년 행자부는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내놓은 바 있다. 가임 여성 분포도라는 퇴행적 인식이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결혼에 대한 거부는 순식간에 출산에 대한 거부로 사회에 대한 기여의 거부로 이해되기 일쑤이다. ‘자기 좋을 대로만 살 수는 없는 게 아닐까’,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여성은 ‘눈이 높거나 까다로운’ ‘이기적인’ 존재가 아닐까라는 식의 비난으로 구체화되는 비혼에 대한 편견이 여전하다. 10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도 비혼 선언이 인간 선언인 것 또한 여전하다.

주거독립이 먼저다

대체로 여성들의 문제로 연상되는 미혼이나 비혼이 남성과 무관한 것은 물론 아니다. 자본의 글로벌화가 심화된 2000년대 이후로, n포 세대 청년들에게 결혼은 커녕 연애도 사치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아니 겨우 생존하기 위해 스펙 쌓기를 위한 자기계발에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결혼은 언급생심의 일이 되었다. 결혼은 아예 선택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이형 작가의 단편소설 『마흔 셋』(『작은 마음 동호회』, 2019)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아내이자 엄마가 아니라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 그것이 자신의 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한다. 비혼은 결혼과 비-결혼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여성의 생존권 획득과 인간 선언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가출을 한 후 한 가족이 겪게 되는 변화를 보여주는 조남주 작가의 단편소설 『가출』(『창작과비평』, 2018년 봄호)에 의하면, 가부장의 자리가 빈 공간으로 남겨질 때 오히려 가족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게 될 수도 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단위체로서 움직여야 했던



나혜석_출처:경기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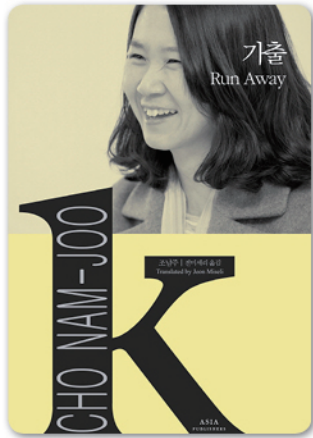


『여자계』_출처:경기신문



『작은 마음 동호회』_출처:알라딘

Living together new possibilities, living alone



「가출」_출처:교보문고


가족은 아버지에게 맞춰야 했던 기호나 취향을 되찾기도 하고 그리하여 부모, 부부, 남녀의 위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관계 쪽으로 나아가게도 되는 것이다.

가부장의 자리에 부여되는 권위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이의 본래 성품과는 무관하지만, 대개 가부장의 권위는 아버지로서의 책임 의식과 구분되지 않는다. 서른을 코앞에 둔 사회생활 5년 차 직장인임에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주거 독립을 하겠다는 선언조차 가부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그래서이다. 이성애를 기반으로 한 결혼 이외의 상상은 존재할 틈이 없고,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고, 결혼을 한 후에는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가출」은 퇴행적 소설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에서 「가출」은 역설적으로 결혼 제도나 정상 가족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여성의 주거 독립조차 선언과 투쟁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현실 그 자체를 직시하게 한다. 비혼 선언은 그 선언에 앞서 독립적인 성인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의 확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새삼 확인하게 한다.

조립형 가족과 퀴어적 상상력

이런 경우는 어떤가. 황정은 작가의 연작 장편소설 『디디의 우산』(2019)에서 여자 둘이 함께 사는 모습을 두고 유치원에서 배운 상식으로 조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자는 여자와 결혼할 수 없어. 결혼은 남자랑 하는 거야.” 이 말은 아이의 입을 통해 발언되었지만 아이의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아이의 선생님을 통해 전수된 사회의 상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이모의 삶이 정상성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조카가, 가족이, 이웃이, 사회가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관계인가”를 묻게 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상식 바깥의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결혼에 대한 거부는 기존의 가족 구성을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게 된다. 비혼 선언은 지금껏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정상이라 불렀던 가족 형태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일이 되는 것이다.

김혜진 작가의 장편소설 『딸에 대하여』(2017)나 단편소설 『동네사람』(『창작과비평』 2018년 여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사회가 부여하는 불온성의 표식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결과적으로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선택이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그것은 사회를 위협하는 불온한 생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자면 그것은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한 거부이자 탈 이성애적 관계를 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된다. 정상 가족이라는 상식에 질문을 던지고 이성애 바깥을 폭력적으로 지워 버리는 강고함에 저항하는 태도, 즉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조립형 가족에 대한 요청이나 퀴어적 상상력과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론 비혼 선언이 마냥 낙관적 미래만을 약속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성애가 강고한 남성중심적 사회, 다르게 말해서 가족 단위로 임금이 지불되는 사회, 가족의 내의를 두고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을 구분하는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그만큼 어렵다. 여성에게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좀 더 빈곤한 삶을 살게 될 확률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비혼이 그저 결혼이라는 형식의 거부일 수만은 없으며 자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내던지는 일임을, 그것을 통해 남녀의 구분과 가족에 기반한 이 사회의 인식 전반에 대한 재편을 요청하는 의미 있는 목소리를 다시 짚어줄 필요가 있다. 비혼의 선언은 ‘혼자 살기’의 선언이자 이 사회가 모색해야 할 ‘함께 살기’의 새로운 가능성인 것이다. 



「디디의 우산」_출처:경향신문



「딸에 대하여」_출처:YES24

비혼을 권하거나, 결혼을 권하지 않거나

영화에서 그려진 결혼과 비혼에 관한 몇 가지 시선
“결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다” 현대 사회상 반영

지나라 | 스토리콘텐츠 말·글 대표

한때 신드롬까지 몰고 왔던 TV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잠잠해졌지만, 시청률 30%를 찍으며 한창 방영 중일 때는 대화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은 사람은 대화에 끼지도 못했으니까요. 매회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드라마 대부분이 그렇듯) “그럴 수 있다”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로 압축됩니다. 드라마가 끝난 뒤 질문은 어찌 보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데?(이 역시 드라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화 <더 랩스터>



“

결혼이나 연애에 무관심한 사람에게 과연 비정상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가?
현실적인 안주와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위해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

“이렇게 힘든 데도 결혼하고 싶어?”

주인공 지선우(김희애 분)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을 규정짓고 심판하겠다는 오만함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또 “부부간의 일이란 일방적인 가해자도 완전무결한 피해자도 성립할 수 없는 게 아닐까”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물론 결혼한 이들의 고통과 불행을 그렸다고 해서 이 드라마가 비혼(非婚)을 적극 권장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삶의 고통과 불행을 다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죽음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점에서 <부부의 세계>는 결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혼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離婚)을 다룬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물론 결혼과 부부라는 관계의 한계를 다룬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며 많은 이들이 비혼을 결심하거나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비혼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비혼이라는 선택지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공했다는 점이 <부부의 세계>가 이전 드라마와 다른 변별력은 아닐까요?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혼은 이제 보기 드문 주제가 아닙니다. 아예 직접적으로 비혼을 ‘찬양’하기도 하고, 결혼과 부부 생활의 고통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혼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든 데도 결혼하고 싶어?”라고 묻는 거죠. 심지어 역설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거나 커플이 되지 못하면 동물로 취급하는 우화를 통해 ‘결혼만이 선(善)’이라는 기존 통념의 전복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이런 전복적인 시도에 더 관심이 갑니다. 대표적인 영화 중 하나가 지난 2015년 개봉한 <더 랍스터, The Lobster>입니다.

짝을 찾지 못하면 동물로 변하는 세상

<더 랍스터>는 사랑이나 짝을 찾지 못하면 동물로 변하는 기괴한 벌을 받는 이상한 세계가 배경입니다. 동물로 변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찾아 마지막 기회를 얻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커플 메이킹’이라는 호텔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곳은 동물로 변할 위기에 처한 독신 남녀, 이혼남녀 등이 짝을 찾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45일. 이 기간에 짝을 찾지 못하면 동물로 변해 숲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커플을 이루기 위해 그야말로 눈물겨운 ‘사투’를 벌입니다.

아내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주인공 데이비드(콜린 파렐 분)도 개 한 마리와 함께 ‘커플 메이킹’ 호텔을 찾습니다. 그가 데려온 개는 짝을 찾지 못해 결국 동물로 변한 형입니다. 호텔 직원이 어떤 동물이 되고 싶냐고 묻자 데이비드는 랍스터가 되고 싶다고 답합니다.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호텔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매일 짝을 찾는 커플 메이킹 행사, 그리고 짝을 찾지 못한 동물 사냥입니다. 커플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사냥이라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연장되니까요. 데



영화 <더 랍스터>. 사랑이나 커플을 찾지 못하면 동물로 변하는 벌을 받는다.



영화 <결혼 이야기>는 완벽한 커플도 결혼이라는 제도에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지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 짝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여성을 사랑하는 척 연기하다가 들통나자 숲으로 도망칩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무대는 숲입니다. 이곳은 호텔과 정반대의 장소입니다.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이성 교제를 금지시키는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솔로 천국'인 셈이죠. 사랑에 빠지거나 커플이 맺어지면 가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영화는 사랑과 커플 맺기를 강요하는 호텔, 사랑과 커플 맺기를 금지시키는 숲,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대별되는 두 장소를 통해 결혼과 연애를 '강요하는' 현대 사회에 일침을 가합니다. 감독은 생존을 위해 사랑 없는 연애와 결혼을 강요받는 '커플 메이킹' 호텔의 일상을 통해 결혼 만능주의 사회를 통렬하게 풍자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렇게 묻습니다. 결혼이나 연애에 무관심한 사람에게 과연 비정상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는가? 현실적인 안주와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위해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완벽할 수 없는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과 이혼에 대해 흥미경을 들이던 것과 같은 적나라한 관찰을 통해 "결혼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를 묻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9년 개봉한 <결혼 이야기, Marriage Story>입니다. 시작은 달콤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작은 장점을 존중합니다. 남편 찰리(에덤 드라이버 분)는 아내의 장점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들과 잘 놀아준다. 배우로서 뛰어난 자질을 갖췄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맞장구를 잘 쳐준다." 아내 니콜(스칼렛 요한슨 분)은 남편의 장점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요리와 청소를 잘하고 웃도 잘 입는다. 세심한 배려로 주변인을 자기편으로 만든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연극 연출자다. 아들과 잘 놀아준다."

하지만 이런 기억과 회상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부부는 이혼 조정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빼어난 연출가에 요리와 청소도 잘하고 아이와 잘 놀아주던 남편, 뛰어난 배우이자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두던 아내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헤어질 수도 있었지만, 부부는 양육권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소송에 들어가자 서로의 장점은 서로를 비하하는 무기가 됩니다. 상대를 사랑했던 이유는 이제 상대를 죽도록 미워하는 이유가

되면서 둘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연출합니다. 그렇습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모두가 헤어지고 이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이혼하면서 미워지게 마련입니다. 남편 찰리와 아내 니콜도 예외는 아니죠. 이혼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놓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막장이 따로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제목을 <이혼 이야기>라고 붙여야 더 어울릴 법한데, 왜 <결혼 이야기>라고 붙였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혼의 과정은 난장판이 됩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파탄한 것은 남편 찰리와 아내 니콜이라는 자연인으로서의 부부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장점을 있고 서로 그 장점을 인정해도 두 사람의 결합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영화는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금이 가기 시작한 두 사람의 관계를 덮고, 묵인하고, 꿀게 만든 것은 식어버린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한계가 뚜렷한 결혼 때문이라고, 영화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이혼 이야기>나 <비혼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 이야기>인 이유입니다.

사랑의 끝이 결혼이 아니듯...

한때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가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싱글 여성에 대한 여러 왜곡된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비혼 여성의 이미지를 밝고 당당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영화 <더 랩스터>나 <결혼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라는 사르트르의 말을 인용해 "결혼은 지옥"이라고 했을까요?

지난 201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더 이상 결혼이 의무가 아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무려 응답자의 56.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통계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결혼을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는 생각이 절반을 넘은 것입니다. 비혼을 적극 추천하지는 않더라도 결혼의 고통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것 같습니다. 대중문화가 사회 현상이나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물인 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 짓지 말고 결혼과 비혼을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낸 영화나 드라마가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사랑의 끝이 결혼이 아니듯, 비혼이 사랑의 부재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W](#)

#1 대전의 미래는 여성이 이끈다

'미래여성아카데미'는 지역 여성 인재를 발굴 육성해 각 분야의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대전시 여성가족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해 무료로 교육한다. 교육강좌는 '여성리더 디딤돌 과정', '2030 청년여성 역량강화 과정', '활동강사 역량강화 과정', '양성평등 큐레이터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여성리더 디딤돌 과정'은 양성평등의 인식 확대와 여성 리더십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과정으로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1기 과정은 이미 선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기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2030 청년여성 역량강화 과정'은 대학생, 직장 새내기 등 20~30대 여성이 참여할 수 있으며 리더십을 갖춘 청년여성의 배출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활동강사 역량강화 과정'은 성평등 및 폭력 예방 교육 강사와 현장 활동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과정이고, '양성평등 큐레이터 과정'은 독서지도사, 마을 작은 도서관 활동가, 성평등 강사이거나 활동을 원하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구성되는 '미래여성아카데미' 강좌를 평소 여성주의, 젠더, 성인지 감수성 등에 관심이 많거나 자기개발에 목말라 있는 여성에게 적극 추천한다.

각 과정은 30명으로 운영되며 정원 초과 시 추첨으로 선발하고, 과정별 출석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좌별 자세한 교육과정과 모집 시기 등은 여성가족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여성가족원(☎270-7622)으로 하면 된다.



2020년 당신을 위한 대전시의 노력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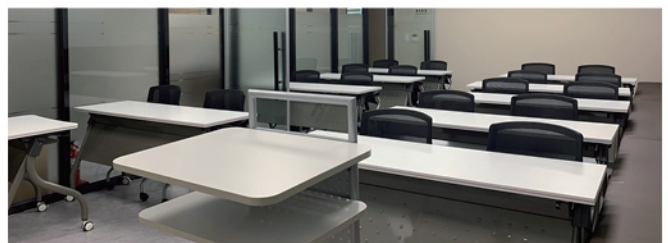
최근 우리 사회의 여성은 비주류계층으로 받던 기존의 어려움에 더해 코로나19라는 원치 않았던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더해진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전시는 2020년 새로운 비전을 '시민이 참여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생활 속 평등 문화가 확산되는 사회'로 정하고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손에 손 맞잡고, 오손도순 공들여 함께 키우는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개소

대전시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공적 돌봄시설을 이용하기 쉬웠던 반면에 초등학생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제로 인해 공적 돌봄기관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 그에 더해서, 코로나 19로 인해 일반 가정의 아동 돌봄과 영·유아 긴급 돌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대전시는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고 품앗이 공동육아 커뮤니티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지난 6월 1일에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손·오·공'」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책으로, 함께 키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체계 구축을 위한 디딤돌이다.

'손·오·공'에는 커뮤니티 홀, 별난 놀이터, 수유실, 교육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누구나, 빠르고, 쉽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단순히 아이 돌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부모들이 모여 육아와 돌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부모로서의 역할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활동가 및 맘코치양성과정을 통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그동안 올바르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 불안했던 마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정보의 부족으로 홀로 감당해야만 했던 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다함께 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손·오·공」의 활약을 기대한다.



주소 |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선화동 대전테크노파크디스테이션) 3층
전화 | 042-335-7000

여자의 방을 찾다

최예린 | <한겨레> 기자

Women's Room



공간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이 소설을 쓸 수 있으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꽤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견해를 전하는 것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방, 즉 공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기 정체성’의 전제가 된 단 말인가.

심리학자 김정운은 <바닷가 작업실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른다>에서 ‘슈필라움(Spielraum)’을 이야기한다. 슈필라움은 놀이(Spiel)에 공간(Raum)이 더해진 독일말이다. 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의 공간’을 뜻한다.

김정운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말한다.

“심리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 ‘삶이란 지극히 구체적인 공간 경험들의 앙상블’이라고 정의 내렸다. ‘공간이 기억’이며 ‘공간이야말로 내 아이덴티티’라는 이야기다.”

나의 ‘정체성’인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여성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러므로 내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꽤 중요하지 않은’ 하늘 뭉게구름 같은 이야기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래도 굳이 소개해보려 한다. 우리 주변 어떤 ‘여자의 방’ 들을. 언젠가 ‘나의 방’도 찾아지길 기대하며.



나의 일쌍, 커피집

대전 서구 탄방동 '커피집, 일쌍'은 낯선 곳이다. 낡은 아파트 옆 골목을 지나다 우연히 들어간 곳에 친숙한 얼굴의 낯선 분위기의 주인이 웃고 있었다. '일쌍'은 로스팅 카페다. '일쌍'의 남소유 사장은 짬이 나면 수시로 커피를 볶는다. 환하고 단정한 작은 커피집에 구석 구석에 낮게 내려앉은 커피향과 앞치마를 두르고 로스팅하는 여자. 그 모든 것이 어울려 조화로우면서도 어쩐지 낯선 '일쌍'에 이끌려 나는 이곳의 단골이 됐다. 노골적인 단골집 홍보라 해도 할말은 없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의 주제를 '여자의 방'으로 정한 순간 바로 '일쌍'을 떠올렸다. 서울 토박이인 조운씨가 3~4년 전 잘 다니던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에 내려온 건 오직 그 자신을 오롯이 실현할 '나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여느 조직처럼 전 직장도 위로 올라갈수록 남녀차별이 있었어요. 내가 많은 성취를 했는데도 남성 동료가 더 중요한 업무를 맡고 먼저 승진하는 식이었죠. 36살쯤부터 제2의 삶을 꿈꾸며 준비를 시작한 것 같아요"

조운씨는 적극적으로 '나'를 찾았다. 틈을 내 사진, 꽃, 그림, 도자기, 악기(플루트), 빵 만들기, 커피를 배웠고, 여행도 자주 갔다. 39살 커피숍을 차리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 그걸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곳을 만들기로 했다. 7~8년 넘게 전국의 커피숍을 짬을 내 돌아다녔고, 주말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일쌍에는 그런 조운씨 삶이 있다. 로스팅뿐 아니라 테라스 조경, 꽃꽂이, 케이크·빵·과일청 만들기도 그가 직접 한다. 가게 곳곳엔 그녀가 읽은 책, 여행지에서 하나하나 모은 소품, 예술가들의 도자기 등이 자연스레 놓여있다. 언젠가 "하필 왜 대전이었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렇게 북적여 여수선하지도 않으면서 꾸준히 사람이 지나다니는 골목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일쌍'이란 이름이 흡족했다. (사실 같은 이름의 커피숍을 인수해 다시 꾸민 것이다) 그를 만나고 '일쌍'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됐다.

"일쌍이란 간판을 보는 순간 '하루가 두 번인 것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떠올렸다. 커피집은 '익숙함'과 '낯섦'이 공존하는 곳이라 좋았다. 똑같은 공간이라도 창가에 앉느냐 구석에 앉느냐에 따라 느낌도 커피 맛도 다르다. 이곳은 나의 '집'이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여행지'이기도 하다."

부러운 친구의 편한 집에 잠깐 머물러 가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일쌍'을 향한다. 조운씨의 '슈필라움'을 공유하려.



결혼 여성을 위한 마을 우물, 커피클레이

여성에게 '일자리'는 어떤 의미일까. 여전한 성차별과 성폭력적 분위기, 남성을 육아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인식. 일터뿐 아니라 '일자리 찾기'에서도 여성은 아직 채용의 '메인' 대상이 아닌 '서브'로 분류된다. 거기에 '이주'란 단어가 붙으면, 여성 경제활동의 여지는 고갈된다. 민족주의 기세가 등등한 한국에서 이주여성은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들다. 남성 없이 스스로 자립할 기회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중구 원동의 '커피클레이'(마을살림공작소 1호점)는 보기 드문 공간이다. 결혼 이주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이 함께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이곳에서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주고받는다. 상담공간을 따로 두고 전문인력도 배치해 이곳을 찾은 사람에게 고민·생활·채용 상담을 해주기도 한다. 결혼 여성이 '자립'해 가정과 사회 안에서 당당히 제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이다.

'커피클레이'는 카페와 공방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커피숍 한쪽에는 대전 지역 생활창작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판매하고, 맞은편 한쪽에는 '커피점토' 만들기를 체험하는 공방이 있다. 커피점토는 커피찌꺼기로 만든 천연재료다. 인체에 해롭지 않은 클레이로 컵도 만들고, 점토 인형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커피점토 공방은 엄마·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공간이다.

'커피클레이'의 류은덕 대표는 선화동 '행복한 수'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결혼 이주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들의 공동체를 꾸려왔다. 선화동에 살며 다문화가정 이웃들과 만났고 친구가 됐다.

"한국인 친구가 생기면 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커피클레이'는 마을의 공동 우물과 같은 곳이에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나의 것이죠. 결혼 이주 여성도, 경력 단절 여성도,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곳에서 성장의 발판의 마련할 수 있길 바라요"





친구를 만나, 머물다가게

대전 대동의 '머물다가게'는 청년의 꿈을 담는 곳이다. 출판회사에 다니던 임다는 대표는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반년 동안 세계여행을 하면서 '머물다가게'와 같은 공간을 상상했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모여 꿈을 꾸는 공간, 그들의 '굿즈(작품)'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공간, 너른 테이블을 가게 한가운데 두고 수다든 토론이든 자유롭게 떠들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다. 비록 현실에선 작은 탁자만 둘 수 있는 좁은 공간으로 실현됐지만, 그의 꿈은 조금씩 천천히 방향을 잡고 있다.

'머물다가게'의 '대전굿즈'도 지역 청년 작가들과 함께 만든 작품이다. 지난해 대전마케팅공사의 아이디어 공모에 참가해 '대전방문의 해' 관련 사업으로 선정됐다. 꿈들이가 그려진 소맥잔, 한빛탑을 담은 유리 캔들 홀더, 에어팟 케이스, 문구류, 엽서, 에코백 등등 그대로 놓고 오기엔 차마 눈에 밟히는 굿즈들이 가게 안에 가득하다.

다음씨는 이곳을 꾸리고 지키며 자신도 모르는 '나'를 찾아가고 있다. "제 의지로 '머물다가게'를 열면서도 '내성적인'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는 일이 정말 즐거운 거예요. 제가 사실 사람을 무척 좋아한다는 걸 이곳에 있으면서 깨닫게 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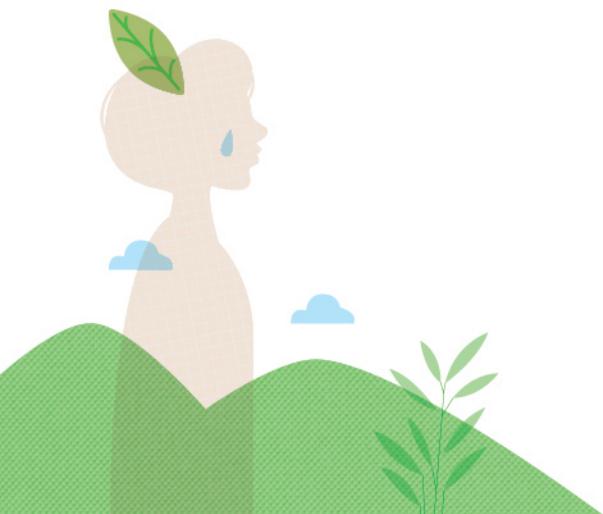
그는 지난해부터 가게가 있는 대동의 사계절을 필름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 언제 재개발될지 모를 하늘 밑 낮은 마을의 봄·여름·가을·겨울을 '아쉽고 애뜻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가을에는 그렇게 기록한 사진과 글을 책으로 묶어 낼 계획이다. 문득 '그의방' 만큼이나 그의 글이 궁금하던 생각이 들던 차, 가게 한쪽에 꽂힌 그의 에세이집 <나도 너처럼 때때로 고민을 해>가 보였다.

"시럽을 뺀 아메리카노를 먹을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던 누군가의 말이 정말이라면, 아직도 난 멀었나 보다. 쓰다. 꿈을 뺀 내 삶은 아직 내겐 영 쓰다." 임다는 글, <아메리카노> 중 W



여성과 자연, 다르지만 같은 아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다.
“자연에 대한 폭력과 사회적 소수를
향한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
이 생각이 어떤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31호를 함께
만들고 있는 네 명의 청년 편집위원들이
직접 만나본 에코페미니즘에 대해 썼다.



에코페미니즘, 평등과 공존의 세상을 꿈꾸다

심혜린 | 카이스트·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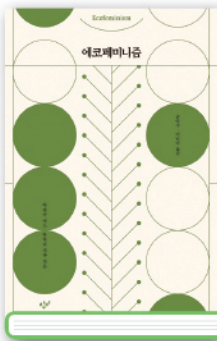


살충제의 성능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해충에 의한 피해를 보는가? 1962년, 살충제와 제초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이 출간되었다. 책은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과 발전주의의 부작용을 세상에 알려 현대적 환경운동을 촉구했다. 이후 환경운동, 인권운동, 반전운동 등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연을 정복하며 발전해온 자본주의와 여성을 지배하고 자 하는 가부장제 사이의 연관성을 논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자연에 대한 폭력과 소수자를 향한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다.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의 합성어인 에코페미니즘은 이러한 인식 속에서 등장했다. 에코페미니즘은 인간 사이의 평등함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여성 해방과 자연 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철학이다.

에코페미니즘은 모든 종류의 지배와 착취가 사라진 사회를 꿈꾼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지배와 정복으로 대표되는 남성적 체제를 벗어나 여성적 관점에서 해결법을 찾는다. 이로부터 '자급적 관점(Subsistence perspective)'이 발전지향적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되었다. 자급이란 '최소한의 생필품으로 살아가는 것' 또는 '자력으로 존재하고 스스로를 부양하는 것'을 뜻한다.

에코페미니스트로서의 자급적 삶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지우려 하는 에코페미니즘에서는 일상적 실천이 곧 정치적 행보가 된다.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하기, 뜨개질과 바느질, 손수건 챙기기, 화장품 줄이기, 재활용하기, 채소 키우기 등 누구나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에코페미니즘을 실천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파괴되고 있는 지구의 환경이 걱정된다면,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착취와 폭력에 반대한다면 에코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가치와 그 실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에코페미니스트는
거리의 투사인 동시에
철학자다
”

❶ 에코페미니즘

지은이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출판사 창비 (2020)

1993년 첫 출간된 「에코페미니즘」은 인도 출신의 이론물리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반다나 시바와 독일 출신의 사회과학자이자 여성운동가인 마리아 미스의 합작으로 탄생한 생태주의 페미니즘의 고전이다. 두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에코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와 더불어 풀뿌리 에너지로 대표되는 여성의 움직임이 어떻게 지금의 사회 및 기후 문제에 공헌할 수 있는지를 논한다. 자급적 관점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며 연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에코페미니즘」의 메시지는 출간 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유효하다.



“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덜 쓰면서
단순하게 잘 사는 법,
‘에코페미니즘’을 만나보세요
”

❷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지은이 여성환경연대
출판사 프로젝트 P (2019)

페미니스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자.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는 “관찮지 않은 세상을 관찮게 사는 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녹색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단체인 여성환경연대는 책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실천을 제안한다. 다양한 인포그래픽과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현재 지구의 환경·기후 문제와 젠더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에코페미니스트가 가지는 고민과 지향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미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경멸하지 않아도 될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작가의 말 中)
”

❸ 목소리를 드릴게요

지은이 정세랑
출판사 아작 (2020)

딱딱한 사회도서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문학작품으로 에코페미니즘과 친해져 보는 것은 어떨까. 이전부터 친환경적 태도를 작품 속에 녹여 온 정세랑 작가의 신작 단편 소설집인 「목소리를 드릴게요」는 에코페미니즘적 정서가 담긴 여러 단편을 포함한다. 여성성과 자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편들을 읽다 보면 인간과 지구 모두에게 무해하고 건강한 세상의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에코페미니즘,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예요

조수은 | 충남대학교·편집위원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코 페미니스트인 민경, 예나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약속 장소에 가니 이미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에 덩달아 이번 인터뷰가 기대됐다. 벌써 하고 싶은 말이 꽤 많은 거 같아 준비해간 질문들이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들 정도였다. 민경 씨는 대학 내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에코페미니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예나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그림일기 형식으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Q 나에게, 에코페미니즘이란?

민경 | 제게 에코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이유를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예나 | 이기심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리고 있는 권력을 깨닫게 돼요.

Q 관련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민경 | 축산학을 전공하며 동물들이 자원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기묘하게도 그 모습이 지금 이사회가 여성들을 착취하는 것과 겹쳐 보였어요. 그때부터 충격을 받고, 고기 소비를 줄이는 등의 관련 활동을 시작했어요.

예나 | 가장 큰 계기는 독립을 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일회용품이 마주하게 됐어요. 나 혼자 사는 데만 해도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세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배출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에코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Q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상황은?

민경 | 인간사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일회용품들이 자연을 파괴하는 원인 중 하나인데, 우리는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어 포기하기 힘든 거 같아요. 제가 토끼를 키우는데 배변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외에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육류나 유제품을 주실 때마다 매번 거절하는게 어렵더라고요.

예나 | 페미니즘을 접했을 때처럼 에코페미니즘도 못 보던 것들이 보이게 되면 피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감당해야 할 때가 많아요.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서 외롭기도 고 무언가를 사야할 때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 같아요.

Q 그럼에도 에코페미니즘이 내게 좋았던 점은?

민경 | 절약이요. 제가 워낙에 맥시멀한 사람이라 과소비가 많았는데 에코페미니즘을 만나서 많이 바뀌게 됐어요. 또 건강을 챙기게 된 점? 그리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게 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나 | 정말 많은 장점이 있는데, 우선 고기 소비를 안하고 재활용을 우선으로 생각하다보니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돼요. 게다가 타자화에서 벗어나 생태주의적, 환경주의적 관점을 알아가며 넓은 식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Q 이 인터뷰를 읽고 있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민경 |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로만 환경을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한가지라도 실천하시는 삶을 고민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나 | 사실 환경보호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린 배려가 필요해요. 자원화가 된 것들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수거하는 것만 잘 하셔도 큰 도움이 돼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지구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多菜: 다채로운 채식두 끼

길민지 | 충남대학교·편집위원

가끔씩 드라마에 나오는 짜장면을 보면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 미칠 것 같은 순간이 있다. 그래서 점심 약속을 급히 중국집으로 바꿔 우리는 '태원'에 방문할 수 있었다. 사실 태원은 비건 식당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집을 택한 이유는 메뉴판에 '채소류'가 별도로 존재했기 때문. 이날 약속을 함께 했던 이들이 전부 채식주의자는 아니었기에 우리는 고심 끝에 채식 메뉴로는 '청국탕수버섯'을 주문했다. 짜장면은 채소 비율이 높은 간짜장으로.

10분 정도를 기다려 나온 버섯탕수는 어릴 때 그렇게 싫어했던 급식메뉴가 맛나싶을 정도로 맛있었다. 가볍고 바삭바삭한 튀김옷을 입은 표고버섯은 그냥 일반 탕수육을 먹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탕수소스도 채소 건더기가 많고 달큰했다. 무엇보다 양이 엄청 많아서 한참을 먹다가도 남아서 결국 내가 집에 포장(반찬통을 안 챙겨서 일회용품 사용하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해왔는데 에어프라이기에 다시 돌려 먹어도 여전히 바삭한 맛이 일품이었다.

만약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과 가게 된다면 태원에 데려가 보는 건 어떨까.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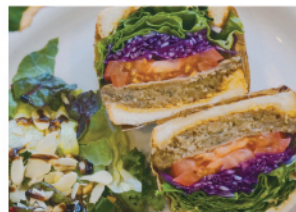
✂태원

영업_매일 11시 ~ 21시30분 (브레이크 타임 15 ~ 17시, 평일만)
위치_대전 서구 문정로 19

처음 채식에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한강의「채식주의자」를 읽고 나서였다. 그 도전은 얼마 후 참석했던 대학 OT 뒤풀이에서 먹은 고추장삼겹살로 자연스럽게 끝났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해 여름 영화〈옥자〉가 개봉했고 또 한번 나는 채식을 시도했다. 처음보단 꽤 오래 유지하는 듯 했으나, 스무 살 새내기기의 다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죄책감과 의무는 잊어버리곤 어느새 고깃집 불판 앞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이 핑계를 댔지만 사실 나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 채식에 단계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으니. 그러던 중 작년 가을에 채식주의자를 처음 만났다. 동시에 그들은 운 좋게도(?) 페미니스트였다. 그 덕에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채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되었다. 집에서도 채소 위주로 요리를 해 먹는 편이지만, 외식을 할 때도 가능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려 비건 식당을 찾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찾아간 '에이블리'는 채식브런치와 카페를 겸하는 식당이다. 이미 한번 방문한 적 있는 친구 H의 추천을 받아 '수제 비건 샌드위치'와 '바질페스토 파스타', '건토마토 오일 파스타', 이렇게 총 3개의 메뉴를 주문했다. 주문하기 바빠 뒤늦게 가게를 둘러보았는데, 흰 천과 함께 따뜻하고 푸릇푸릇한 식물들로 채워져 있었다. 따사로운 4월 햇살에 몽롱해질 무렵, 주문한 음식들이 나왔다. 사진작가 H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휘황찬란한 사진들을 찍어냈고 덕분에 나는 알맞은 온도로 식은 파스타들을 먼저 맛볼 수 있었다.

세상에나! 조금 식었는데도 정말 맛있었다. 게걸스럽게 파스타를 해치운 우리의 시선은 곧장 샌드위치로 향했다. 입에 넣자마자 씹히는 두부패티의 식감이 꽤 단단했다. 질긴 게 아니라 진짜 고기와 같은 식감과 맛이 났다. 어릴 적 기억으로 남아 있는 콩고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질긴 고무를 씹는 것 같아 첫 인상이 좋지 않았었는데, 무엇보다 땅콩소스가 참 잘 어울렸다.



사진출처: @through_myeye__

✂에이블리

영업_화~토 / 11시 ~ 15시 (저녁식사는 예약 운영)
위치_대전 유성구 전민로26번길 15

#제로플라스틱

서정이 | 한남대학교·편집위원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전 세계가 뒤숭숭하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대기 오염이 개선되고 맑은 하늘을 보게 된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전염병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 시점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개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동안 지구는 대기, 수질, 산림 등 많은 곳에서 환경문제를 싸우고 있었다. 그 중 해양 생태계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수질 오염과 해양 생물들의 존폐 위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다양한 곳에서 '제로 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 '프리 사이클링'¹과 같은 말이 등장하고 있다. 현지점에서 일부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다.

대덕에너지카페 '그리고, 브런치 카페'

대덕에너지카페 '그리고, 브런치 카페'는 대전충남녹색연합, 한국에너지공단, 대덕구청이 함께 민관협력을 통해 오픈한 공간이다. 이곳은 에너


지카페라는 이름에 걸맞게 환경에 밀접한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다. 일반적인 카페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육, 조사와 연구, 에너지 전환 캠페인, 일상적인 주민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지역 에너지 전환 플랫폼이다. 음료와 먹을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절약 물품을 판매하고, 환경관련 서적을 비치해놓았다.

이곳은 일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옥수수 빨대'를 사용한다. 6개월 이내에 분해되어 퇴비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하다는 설명을 함께 명시해놓았다. 이외에도 스테인리스, 유리, 실리콘, 종이 빨대가 구비되어 있다는 문구가 카페 입구에 적혀 있기도 하다. 또한,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에너지 전환 갤러리 '내일'이라는 이름의 전시공간을 열기도 했다. 기후변화 생물지표 종의 모습이 담긴 사진전과 체험부스, 전시 굿즈 판매 등을 함께 진행했다. 대덕에너지카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몸소 실천할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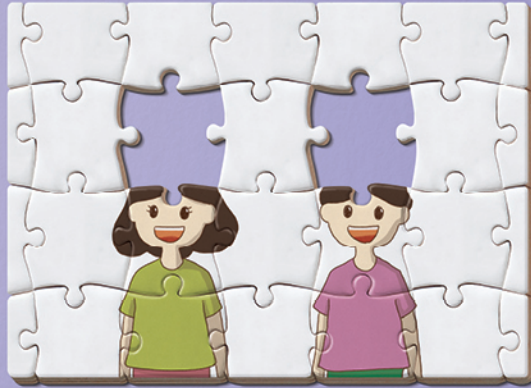
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인식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을 시작으로 에너지카페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니 대전의 다양한 곳에서 만나볼 시간이 기대된다.

작은 실천, 녹색미래

대전광역시 '대전 시소(대전 시민과 소통하는)'라는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올해부터 '환경의 날(6월 5일)', '자원순환의 날(9월 6일)' 등 환경 관련 특정 행사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정해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로 플라스틱, 언뜻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사회나 일상에서, 생활 속 쓰레기와 플라스틱을 최소화한다면 그것이 변화의 시작 아닐까.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지,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은 올해를 시작으로 밝은 녹색빛의 미래가 기대된다. 



1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뜻한다.
2 Precycling, 물건 구입 전부터 재활용을 목표로 한다는 뜻이다.



직업에도 성별이 있나요? 누구에게나 잘 어울려요

직업에 성별은 없습니다.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편견을 버릴 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EQUALITY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2019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디자인 부문 일반부 금상작
김유진 | 어떤 직업이든 잘 어울려요

직업에는 성별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다. 두 성별이 그려져 있는 퍼즐의 머리 부분을 비우고 다양한 직업 관련 모자로 표현된 나머지 퍼즐을 맞추었을 때 어떤 퍼즐을 넣든 모두 맞춰지도록 표현하여 남자, 여자에게 정해진 직업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

